

전남

# ‘개불’ 양식시대 열렸다

여수 수산기술사업소 종묘 배양 성공

30만마리 여수·강진 등 8곳 방류 시작



양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개불이 앞으로 인공으로 대량 생산될 전망이다.

여수 수산기술사업소(소장 임여호)는 최근 개불 종묘를 인공으로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국내에서 개불에 대한 이같은 대규모 인공종묘 배양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수 수산기술사업소는 감소추세에 있는 개불 자원의 회복과 인공양식 가능성을 탐진하기 위해 자체 생산한 개불 인공종묘 30만 마리를 돌산지역 등 여수지역 7곳과 강진 신전면 1곳 등 도내 주요 개불 생산해역 8곳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방류를

시작했다.

이번에 방류된 개불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개불 어미를 관리해 종묘배양한 것이다.

수산기술사업소는 이를 8곳에 이미 지난해 9월 1차례 개불 인공종묘를 시험방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짐작 판단하고 이번에 본격적인 방류를 시작했다.

모래속에 U자형 구멍을 파고 사는 개불은 아미노산 가운데 타우린·글리신·알라닌 등의 함유량이 월등히 높고 비타민 C·E가 풍부해 항암, 면역강화, 간장보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장식품이다.

개불은 연간 소비량이 3600t에 달 하지만 국내 생산량은 200t에 불과, 수요 부족분을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다.

수산기술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개불 인공종묘 방류사업이 성공하면 개불에 대한 양식산업화가 가능해져 국내 수요충족은 물론 어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미생물제 활용 생산비 줄이고 질병 걱정도 없어요”

## 곡성 억대 오리 사육농가 화제

귀농인 석곡 죽산리 조기준씨

직접 만든 천연 미생물제를 활용해 생산비도 줄이고 단 1건의 질병 발생없이 억대 고소득을 올리는 오리 사육농가가 있어 화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46㏊)씨는 8개 동의 축사에서 1만8000여 마리의 오리를 사육해 연간 1억3000만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다.

도시에서 출판업을 하다 귀농한 조씨는 처음에는 항생제를 사용해 닭을 사육했으나 항생제의 위험성을 깨닫고 질병에 강한 오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리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구입한 미생물제를 사용해 오리 폐사율을 줄였고 2008년 4월에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조씨는 경영이 치닫자 안정되자 소득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미생물제를 직접 만들어 생산비를 줄이기로 하고 직접 대나무위에 고무밥을 얹어 자연적으로 생산된 천연미생물을 오리사육에 적용했다.

새끼오리부터 천연미생물을 먹이자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됐고 오리에게 자주 발생하는 호흡기·폐렴증·살모넬라 등 질병이 사라졌으며 출하기간도 단축시켜 사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

또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



의 민원이 발생하자 축사 깔짚에 천연 미생물제를 뿌려줘 냄새를 제거했으며 축축했던 깔짚이 건조되는 효과까지 얻어 깔짚 교환시기를 연장, 경영비 절감효과도 봤다.

조씨는 “앞으로 직접 제조한 천연 미생물의 효능과 역할을 전국 축산농가들에게도 보급하겠다”며 “육가공 공장을 설치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육질 고급화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 ‘신록의 계절’ 남도 볼거리 많아 좋다

5월 초부터 대나무축제·다향제 등 풍성

가정의 달인 5월, 남도가 축제로 물든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막한 함평 나비축제를 시작으로 5월 들어 전남에서 모두 7개의 지역축제가 선보인다.

특히 올해 5월축제는 ‘천안함’ 등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유한성 프로그램을 자제하고 차분하고 내실있게 추진되며 역사적 인물이나 특산품 등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제 기간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된다.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함평 나비축제는 곤충생태학교와 거리 퍼레이드, 외국 축제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농특산품 고정 판매장이 운영된다.

당평 대나무축제(5월1~5일)는 대나무 브랜드 마케팅과 대숲 월별 걷기 여행 등 건강과 웰빙의 대나무 이미지를 살리고 올해부터 민간단체인 보성차생산자조합이 주관하는 보성 다향제(5월1~5일)는 참여가 저조했던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군민화합한 마당, 녹차시음회, 녹차미용체험 등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들로 꾸몄다.

여수 거북선축제(5월3~6일)는 주요 프로그램에 지역 시민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축제 주행장을 여수 신항에서 이온신공장으로 변경, 관광객을 맞이한다.

장성 흥길동축제(5월7~9일)는 행사 진행요원의 복장을 흥길동 복장으로 제작하는 등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완도 장보고축제(5월7~9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으며 영광 법성포 단오제와 글비축제(6월 15~19일)는 법성포구 400여개의 굴비업체가 참여하는 굴비굽기·시식회 등을 열 계획이다.

최동호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축제 홍보율 2단장을 시·군, 한국도로공사 등과 공동으로 제작해 전국 고속도로 톤게이트에서 배부할 계획”이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축제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완도군 노화읍에

구절초 전복마을

郡, 10억들여 조성

완도군 노화읍에 아름다운 ‘구절초 전복마을’이 조성된다.

완도군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노화읍 천구마을에 10억 원을 투입해 ‘전복’과 ‘구절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관광지화해 소득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전복상장탑을 비롯해 ▲전복구절초체험관

▲마을황원 ▲우물복원 ▲구절초 꽃길조성 등 체험·테마위주의 공간을 창출한다.

또 주민 스스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각종 항아리나 옛날 농경자재도 마을 빙터에 비치하는 등 특색 있고 정감 있는 농어촌 문화 마을로 만들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마을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등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를답고 개성 있는 차별화된 테마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정은조기자 ejchung@



녹차미 볍씨소독 연시회

보성군은 최근 ‘고품질쌀 특성화와 녹차미인 보성쌀단지’로 지정된 보성을 대야리에서 볍씨소독·적량(適量)피증 및 줄무늬잎미를 예방 연시회를 개최했다. ‘녹차미인 보성쌀’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선정한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2011년 연속 선정된바 있다.

(보성군 제공)

## 순천 정원박람회 편입 주민들 토지 조기보상 대책마련 촉구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비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주민들 항의가잇따르고 있다.

정원박람회장 보상대책 위원회(위원장 윤덕현) 주민 10여 명은 지난 26일 제148회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조속한 시일내 보상비 예산을

촉구했다.

정원박람회장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실적은 총 414억 원 중 349억원에 해당하는 84%가 협의 완료된 상태이며, 의회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을 할 예정이다.

윤덕현 보상대책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지 않아 보상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미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세 증액분 101억원을 비롯해 순세 계임여금 등 400억원 이상의 추경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토지보상구역내 대상인원은 276명으로 이중 120여 명이 협의가 완료됐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이달 안에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덕현 보상대책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지 않아 보상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미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주기자 ejkim@

## 인생열쇠

☎ 062-383-8982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는 고 할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분

###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 대인동삼일부동산

☏ FAX 02-223-1772 휴 010-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별, 대인동 소방서내리편)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 ●태양광부지 구함.

### ●운영 중인 중형마트

### (150-300평) 임대구함.

### ●토지매매.

•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옆 3,458㎡ 3.3m당

10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완료 조망양호

•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

3.3m당 5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 나주 세지면 송제리 7,385㎡ 3.3m당

48,000원. 보전관리지역.

• 나주 왕곡면 소재지 부근 7,410㎡ 3.3m당

35,000원. 계획관리지역.

• 나주 봉황면 각동리 14,093㎡ 3.3m당

48,000원. 계획·생산관리지역.

• 영암 군서 양장리 19,098㎡ 3.3m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 영암 덕진 영보리 14,414㎡ 3.3m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아담공인중개사**

TEL : 010-3616-8698

##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강영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구역	경매가	회자가
동구	금남동5가	264/926	751억	4억6천7백
동구	금남동6가	317/1220	179억1천1백	8억8천8백
동구	금남동7가	237/1028	10억4천1백	7억6천3백
동구	금남동8가	261/1112	16억1천	10억4천
동구				